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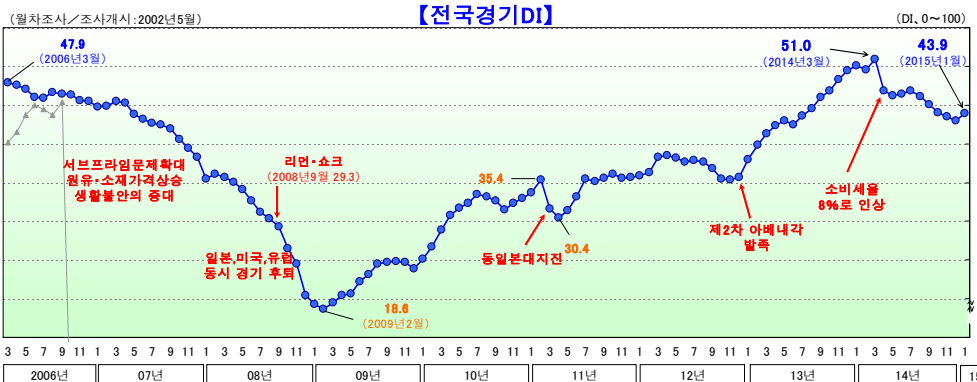
악화경향에 버팀목, 원유가격 하락이 지지

~ 엔저를 동반한 방일관광객 소비로 인해『소매』가 대폭 개선 ~

(조사대상 2만 3,402사, 유효회답 1만 794사, 회답률 46.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43.9로 6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원유가격의 급속한 하락에 의한 기업의 코스트 부담 경감으로 좋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엔저는 음식점 등 방일관광객 소비를 촉진하며,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개선됨으로 국내경기는 악화경향에 버팀목이 되었다. 향후 국내경기는 약한 내수를 외부요인들의 개선이 보충하면서 대체로 보합권 내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별로는『소매』『도매』『서비스』『부동산』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특히 주유소나 연료소매 등에서는 원유가격의 급속한 하락에 의한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기간조정의 시간차를 통한 이익회복이 보인다. 또한 엔저정착으로 인한 방일관광객수 증가에 따른 소비확대로『서비스』경기를 대폭으로 개선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 지역별로는『토호쿠』나『호쿠리쿠』『큐슈』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되었다.『큐슈』는 관광관련 수요가 호조를 보였으며 유일하게 수출기업 체감 경기가 전년동월대비 개선되는 등 엔저 수혜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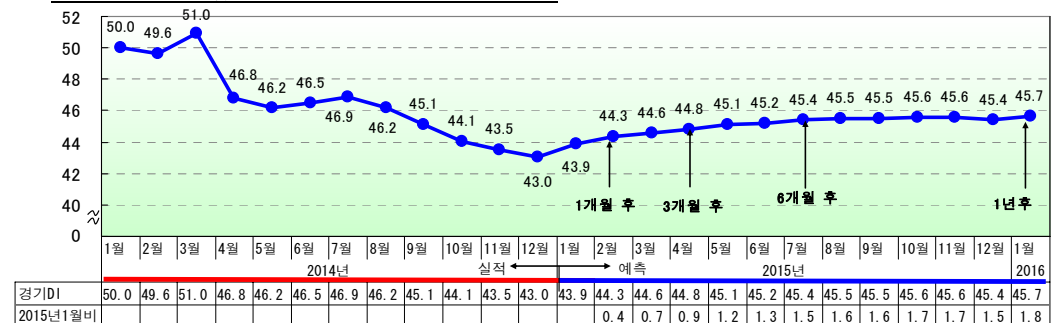


< 2015년 1월의 동향 : 악화경향에 버팀목 >

2015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9포인트 증가한 43.9로 6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1월의 국내경기는 ①원유가격 급락에 의한 좋은 영향이 퍼지고, ②엔저에 의한 방일관광객의 소비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등 일부 소매업계는 원유가격 급락에 의해 판매가격 인하보다 매입가격의 저하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시차에 의한 수익회복도 보이고 있어 전월까지 제한적이었던 영향이 서서히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엔저경향은 방일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음식점이나 가전소매 등에서 판매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출기업으로의 엔저효과는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며, 효과를 본 『큐슈』에서는 대기업의 체감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 경기는 원유가격의 급속한 하락과 함께 기업의 코스트부담 경감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외부요인이 개선됨으로 인해 악화경향의 버팀목이 되었다.

< 향후 전망 :보합추이 >

원유가격 하락에 의한 기업의 코스트부담 경감이라는 경기호재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도 보정예산집행과 법인실효세율 하락 등의 경제 대책이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경제 활성이 실현되면서 지역경제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저경향은 장점·단점의 양쪽 요인을 내포하며 수출확대나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활동으로의 영향이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코스트상승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외에 통일 지방선거에 의한 공공사업 집행 영향이나 임금동향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활발하지 못한 내수를 외부요인개선이 보충하면서 대체로 보합권내에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원유가격 하락으로 코스트 부담 경감, 방일관광객 소비도 좋은영향

· 『소매』 『도매』 『서비스』 『부동산』 등 10 개 업계 중 7 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원유가격 하락이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엔저정착에 의한 방일관광객의 소비가 음식점이나 가전소매 등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 『소매』 (39.1) ... 전월대비 3.2 포인트증가. 2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전문상품소매」 (41.4, 동 2.2 포인트 증가) 는 주유소나 연료소매에 대한 판매가격이 27 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편, 원유가격 하락과 더불어 매입가격의 대폭저하속도가 빠른 시간차에 따른 이익회복이 급속히 진전되어 과거 최고가 되었다. 또한 순조로운 스마트폰과 휴대 전화, 엔저로 인해 증가한 방일관광객에 의한 가전구입의 좋은 영향을 받은 「가전·정보기기소매」 (39.3, 동 5.0 포인트 증가) 가 3개월만에 개선되는 등, 『소매』 는 9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개선되어 막바지수요가 피크였던 2014 년 3 월 (동 3.3 포인트 증가) 이래 개선폭이 되었다.

· 『도매』 (40.4) ... 동 1.3 포인트증가. 6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엔화약세를 통한 자동차수출 회복추세에 힘입어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43.9, 동 1.8 포인트증가) 가 2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설비투자 의욕이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작 기계수주가 호조로 「기계·기구도매」 (44.8, 동 1.6 포인트증가) 가 6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또한 「화학품도매」 (38.9, 동 1.1 포인트증가) 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년 보다 빨리 유행하여 관련 약제나 판정검사키트 판매가 확대되는 등 9개 업종 중 7개업종이 개선 되었다.

· 『서비스』 (48.3) ... 동 1.1 포인트증가. 6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음식점」 (44.6, 동 4.7 포인트증가) 에서는 일부에서 이물질 혼입문제로 영향을 받았으나 엔화약세로 인한 방일관광객 증가에 따라 소비가 확대되고,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얼었던 소비심리가 완화된 2011 년 6 월 (동 7.2 포인트증가) 이래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2015 년 10 월부터 개시되는 마이넘버제도를 제외한 수요증가와 민간기업에서 시스템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53.5, 동 1.3 포인트증가) 는 일손부족문제를 안고도 서서히 판매단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는 15개 업종 중 13개업종이 개선되었다.

· 『부동산』 (45.1) ... 동 1.0 포인트증가. 2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신축빌딩공급이 적은 가운데 기업들의 사무실공간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사무실공실률이 도쿄도심부에서는 약 6 년만의 저수준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또한 아베내각이 내걸은 지방경제활성에 따라 투자자들의 지방부동산가격 하락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어 주택임대나 건물매매, 부동산관리 등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었다.

	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전월비
동·임·수선	44.0	45.0	41.9	42.0	40.7	43.0	45.1	40.9	42.1	41.8	38.6	39.5	41.3	1.8
금융	47.8	47.7	48.5	46.5	46.6	47.5	49.2	47.9	47.1	44.9	45.3	45.2	45.1	▲ 0.1
건설	56.8	56.3	56.0	52.9	51.7	52.7	53.5	53.2	52.8	51.6	51.0	50.3	50.4	0.1
부동산	51.8	48.5	50.0	48.8	48.3	48.8	47.4	46.8	47.0	45.2	43.6	44.1	45.1	1.0
제조	41.6	41.5	42.1	39.7	40.4	40.4	39.9	39.8	39.5	39.0	36.8	37.5	37.2	▲ 0.3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3.2	42.9	45.8	41.5	43.1	41.1	41.8	42.0	39.8	39.4	36.8	38.1	36.8	▲ 1.3
전차·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56.2	55.8	55.5	48.6	47.5	47.0	45.0	44.6	43.3	44.0	44.1	43.3	43.2	▲ 0.1
필름·종이·종이가공품제조	46.7	43.1	47.4	42.8	40.5	38.7	39.4	36.2	36.1	36.7	36.1	36.3	34.8	▲ 1.5
출판·인쇄	36.2	36.0	40.0	36.8	35.3	34.8	34.9	33.7	33.1	31.5	31.5	31.0	31.8	0.8
화학제품	48.9	49.6	50.2	47.5	46.7	45.6	46.6	45.8	43.4	42.4	42.9	43.3	43.2	▲ 0.1
철강·비철금속·광업	52.6	52.3	52.5	47.5	47.4	48.1	48.7	49.1	46.8	45.3	44.4	42.8	44.8	2.0
기계제조	52.2	52.0	54.7	51.6	52.3	52.7	53.8	52.2	51.7	50.5	50.0	48.6	49.6	1.0
전기기계제조	49.2	49.9	49.6	47.0	48.1	48.8	49.9	47.3	46.2	46.1	45.9	45.8	47.3	1.5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5.6	54.1	54.6	50.8	50.2	51.7	52.8	53.4	50.7	48.2	48.0	47.7	47.4	▲ 0.3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7.9	49.1	48.4	42.9	45.2	47.7	48.2	49.3	48.1	46.6	45.4	45.0	47.9	2.9
기타 제조	41.1	41.8	47.0	40.5	38.0	37.8	39.2	39.3	38.3	37.9	38.4	35.2	35.4	0.2
전체	48.7	48.7	49.7	45.9	45.9	45.9	46.3	45.6	44.2	43.4	42.9	42.3	43.0	0.7
도매	41.5	40.3	42.2	39.1	41.3	41.4	41.0	39.6	39.9	39.0	37.1	37.6	38.3	0.7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7.6	38.0	41.5	38.8	37.7	36.8	36.7	35.9	35.3	34.3	30.7	30.2	31.1	0.9
전차·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58.2	56.1	56.2	50.0	46.8	44.3	44.3	42.9	41.5	41.0	39.5	39.3	39.0	▲ 0.3
종이·종이·종이·서적도매	41.4	39.3	48.0	40.3	37.0	36.0	35.9	34.6	33.8	32.9	33.5	31.8	33.2	1.4
화학품도매	46.5	46.2	48.7	43.5	41.9	43.5	43.4	42.8	40.8	40.6	40.0	37.8	38.9	1.1
자동차도매	52.1	47.4	44.3	49.5	48.7	50.0	47.3	47.3	46.1	37.8	40.4	40.8	39.0	▲ 1.8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51.8	51.7	52.0	45.2	44.2	44.4	46.0	44.9	43.5	43.2	43.8	42.1	43.9	1.8
기계·기구도매	50.2	50.4	53.0	47.7	45.8	46.6	47.6	46.7	44.9	43.9	43.6	43.2	44.8	1.6
기타 도매	42.7	43.4	46.0	40.9	40.5	40.3	40.4	40.2	38.6	36.7	37.1	35.1	37.5	2.4
전체	47.8	47.4	49.6	44.6	43.3	43.4	43.8	42.9	41.5	40.6	40.0	39.1	40.4	1.3
소매	42.6	39.1	44.0	37.1	40.8	40.8	39.1	40.7	39.3	36.8	34.7	34.5	36.8	2.3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9.6	37.0	40.8	36.1	37.7	37.3	36.3	36.2	38.2	36.7	32.0	30.8	30.7	▲ 0.1
의약품·의료장비소매	50.0	47.5	56.9	39.9	40.7	44.3	40.8	40.7	41.7	41.1	42.6	38.9	44.6	5.7
가구류소매	59.7	56.4	63.6	35.0	31.7	33.3	28.8	30.6	37.0	22.7	27.3	26.4	28.8	2.4
가전·정보기기소매	50.5	55.1	56.7	45.1	38.4	37.4	39.7	37.4	36.1	36.2	36.0	34.3	39.3	5.0
자동차·동·부품소매	60.1	57.3	56.5	32.7	30.9	30.9	32.1	34.4	33.0	30.1	31.8	28.7	37.8	9.1
전문상품소매	37.3	37.5	39.9	34.7	35.2	35.7	36.2	36.8	36.2	36.3	36.0	39.2	41.4	2.2
각종상품소매	48.6	47.8	55.2	37.3	43.3	45.0	42.1	41.7	41.8	41.2	39.1	40.5	42.6	2.1
기타 소매	33.3	33.3	45.8	33.3	33.3	37.3	36.7	43.3	37.5	40.0	40.0	41.7	33.3	▲ 8.4
전체	44.7	43.8	47.1	36.4	37.3	37.8	37.3	37.8	37.5	36.3	35.5	35.9	39.1	3.2
운수·창고	50.0	49.8	51.8	46.5	46.3	45.1	44.9	45.8	43.7	43.7	44.8	43.8	43.7	▲ 0.1
서비스	45.2	48.5	47.4	46.9	46.9	49.5	49.1	48.7	48.7	42.6	45.1	39.9	44.6	4.7
전기통신	54.5	50.0	50.0	51.9	45.8	50.0	53.3	50.0	50.0	46.3	48.1	50.0	56.3	6.3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0.0	50.0	48.5	53.7	53.7	50.0	51.7	48.3	50.0	46.3	43.8	44.4	50.0	5.6
리스·임대	57.8	56.5	56.2	55.7	54.3	52.7	53.8	51.7	51.8	49.7	49.9	49.1	50.9	1.8
호텔·호텔	50.0	46.6	48.4	44.9	45.2	47.5	47.7	44.4	46.2	46.3	47.0	47.6	47.7	0.1
모객서비스	43.0	41.7	43.3	39.5	38.0	37.6	38.3	39.5	39.4	39.5	36.4	36.5	34.4	▲ 2.1
방송	49.1	49.0	47.9	41.2	40.7	44.0	44.4	45.2	44.0	45.2	43.3	41.7	44.4	2.7
컨텐츠·경비·검사	49.0	49.2	52.6	46.8	46.2	49.0	49.4	46.8	45.7	45.8	43.1	42.6	44.6	2.0
광고관련	43.3	43.0	47.7	42.5	40.8	42.6	42.5	41.4	41.1	38.6	38.7	38.8	38.8	0.0
정보서비스	55.6	54.8	56.3	54.2	55.5	55.0	54.5	53.5	52.8	51.4	51.6	52.2	53.5	1.3
엔터테인먼트·소매	57.7	58.9	57.8	57.5	54.6	57.2	57.2	56.2	56.9	55.6	53.9	54.0	55.7	1.7
전문서비스	56.9	56.4	55.8	54.2	53.8	55.1	55.2	53.7	53.9	50.7	50.7	50.3	50.8	0.5
의료·복지·보건위생	50.6	50.2	50.7	48.3	46.6	47.9	47.6	47.1	46.2	46.2	45.0	44.1	44.7	0.6
교육서비스	43.9	44.7	45.7	42.1	40.3	44.7	45.1	40.7	41.7	42.4	41.7	39.9	40.5	0.6
기타 서비스	49.1	48.1	48.6	46.9	47.2	48.1	48.7	48.4	47.2	44.9	45.2	45.0	47.4	2.4
전체	52.3	51.8	52.9	50.5	50.1	50.6	50.9	49.7	49.2	47.7	47.3	47.2	48.3	1.1
기타	46.8	44.9	52.1	46.0	47.5	44.3	44.9	43.1	42.8	40.6	37.7	41.5	37.3	▲ 4.2
격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12.8	12.5	14.1	16.5	14.4	14.9	16.2	15.4	15.3	15.3	15.5	14.4	11.3	▲ 4.2
중국진출	50.7	50.7	51.7	48.7	49.0	49.5	49.2	48.8	46.2	45.5	45.3	44.7	45.6	0.9
태양광발전	53.7	54.7	55.8	51.5	52.2	51.5	50.6	51.7	50.2	47.7	46.5	46.0	45.7	▲ 0.3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함.

규모별: 7 개월만에 전 규모에서 개선

- 「대기업」이 47.1 (전월대비 0.5 포인트증가) , 「중소기업」이 43.0 (동 1.0 포인트 증가) , 「소규모기업」이 42.3 (동 0.7 포인트증가) 으로 대기업은 7 개월만에,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은 6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원유가격하락영향으로 주유소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소매』와 지가하락 리스크가 완화된 『부동산』 등 5 개업계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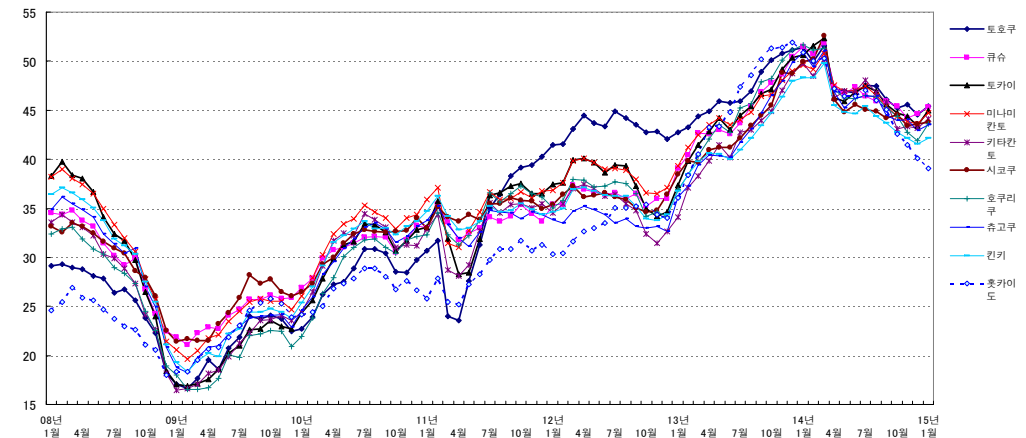
	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전월비
대기업	53.3	53.0	53.6	49.5	49.3	50.0	49.7	49.2	48.1	47.5	46.9	46.6	47.1	0.5
중소기업	49.1	48.6	50.2	46.0	45.3	45.4	46.1	45.3	44.3	43.1	42.6	42.0	43.0	1.0
(그 중 소규모기업)	49.1	48.2	49.7	45.6	45.0	45.3	44.7	44.0	42.5	42.1	41.6	42.3	0.7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2	4.4	3.4	3.5	4.0	4.6	3.6	3.9	3.8	4.4	4.3	4.6	4.1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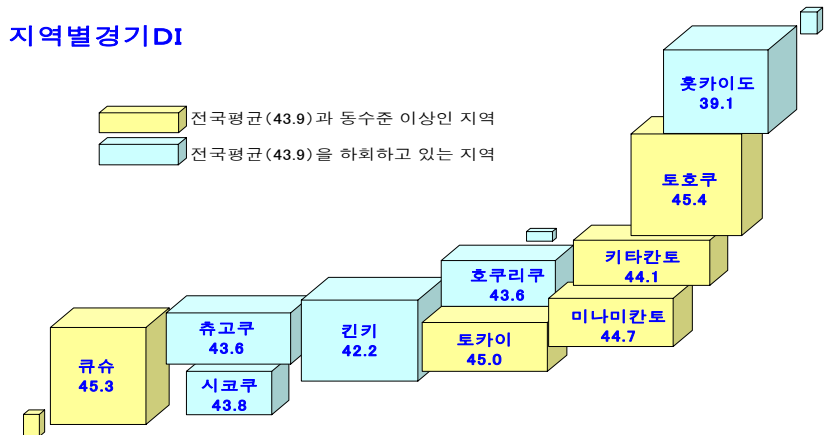
지역별: 10 개 지역 중 9 개 지역이 개선, 단 엔저 수혜는 지역차도

- 『토호쿠』나 『호쿠리쿠』 『큐슈』 등 10 개 지역 중 9 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엔화약세에 의한 방일객 증가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 관광관련 수요가 호조였고 『호쿠리쿠』의 공작기계 등에서 해외수요가 활발하였다. 다만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큐슈』가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개선되었다.
- 『토호쿠』 (45.4) ... 전월대비 0.9 포인트증가. 2 개월만에 개선되어 10 개 지역 중 1 위가 되었다. 지진관련 토목공사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시멘트, 생콘크리트, 골재, 화약등 출하가 꾸준한 외에 눈 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도 좋은 영향이 되었다. 또한 『소매』 (43.5, 동 8.8 포인트증가) 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매입가격이 저하되어 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던 주유소등이 끌어올렸다.
- 『호쿠리쿠』 (43.6) ... 동 1.7 포인트증가. 6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제조』 (43.9, 동 1.5 포인트증가) 는 주력산업의 하나인 공작기계 호조로 6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전월까지 이어졌던 기후에 의한 악화요인이 완화되었고, 호쿠리쿠 신칸센의 카나자와역 개업을 앞두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빌딩관리 등 『서비스』 (47.3, 동 3.2 포인트 증가) 가 크게 개선되는 등 6 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큐슈』 (45.3) ... 동 0.6 포인트증가. 2 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엔화약세로 아시아로부터의 관광관련수요가 호조였던 것과, 수출관련에 있어서도 조선,자동차등이 꾸준하여 10 개지역 중 유일하게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전년동월대비 개선되었다. 또한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유가격하락이 코스트부담경감으로 이어졌다. 규모별로는 철강, 자동차관련이 호조인 「대기업」 (46.8, 동 2.6 포인트증가)이 10 개지역에서 최대개선되었다.

지역별그래프 (2008 년 1 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경기DI



	13년 11월	12월	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홋카이도	51.4	51.9	50.9	50.0	50.2	47.2	46.4	46.4	47.0	46.0	45.0	42.5	41.5	▲ 1.0
토호쿠	50.8	51.2	51.4	49.9	51.5	47.2	46.9	46.8	47.6	47.5	46.1	45.2	45.6	0.4
기타칸토	47.0	48.8	49.7	48.5	50.2	46.3	46.9	47.0	48.1	46.8	45.8	43.1	43.4	0.3
미나미칸토	48.1	49.0	49.6	49.2	50.8	47.5	46.9	47.1	47.4	46.5	45.4	44.4	43.8	▲ 0.6
호쿠리쿠	50.1	51.2	51.7	51.1	51.3	47.1	46.2	46.2	46.5	46.3	45.2	44.3	42.8	▲ 1.5
도카이	49.1	50.4	50.7	51.6	52.3	46.3	45.9	46.9	47.5	47.0	45.6	44.7	44.4	▲ 0.3
킨키	46.3	48.0	48.3	48.4	49.8	45.5	44.8	44.6	45.4	44.4	43.7	42.7	42.1	▲ 0.6
츄고쿠	48.0	49.9	50.9	49.4	51.1	46.8	45.3	46.3	46.5	46.4	44.5	43.9	44.0	0.1
시코쿠	48.8	48.8	50.0	50.2	52.6	46.1	44.8	45.6	45.1	44.9	44.2	44.5	43.5	▲ 1.0
큐슈	48.7	50.5	51.5	50.8	51.8	47.4	46.7	47.4	46.4	45.9	46.0	45.4	44.2	▲ 1.2
격차	5.1	3.9	3.4	3.2	2.8	2.0	2.1	2.8	3.0	3.1	2.4	2.9	4.1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